

국내경기는 3개월 연속 개선

~ 32년만의 엔저(円低)수준, 전국 여행 지원으로 관광 관련이 큰 폭으로 상향 ~
(조사대상 2만6,752사, 유효회답 1만1,632사, 회답율 43.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2년 10월의 경기는 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2.6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용 서비스가 상향하면서, 3개월 연속 개선경향으로 추이하였다. 향후는 서비스 소비 및 DX수요 확대 등이 기대되어 완만한 개선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개 업계 중 『서비스』 『운수·창고』 등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10월 11일부터 전국 여행 지원이 개시되어, 숙박업과 여행업 등 관광상품 관련이 크게 회복하였다. 한편 엔저(円安)와 원재료·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사업단가 DI는 21개 업종, 판매단가 DI는 19개 업종에서 과거 최고가 되었다.
- 1년 만에 10개 지역 모두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38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개선, 8개 현(県)이 악화되었다. 전국 여행 지원 실시 등으로 관광 관련이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며 공공사업의 증가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2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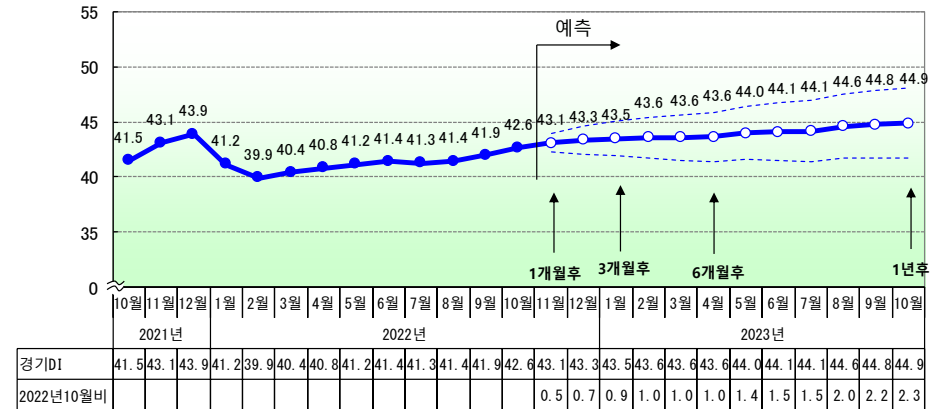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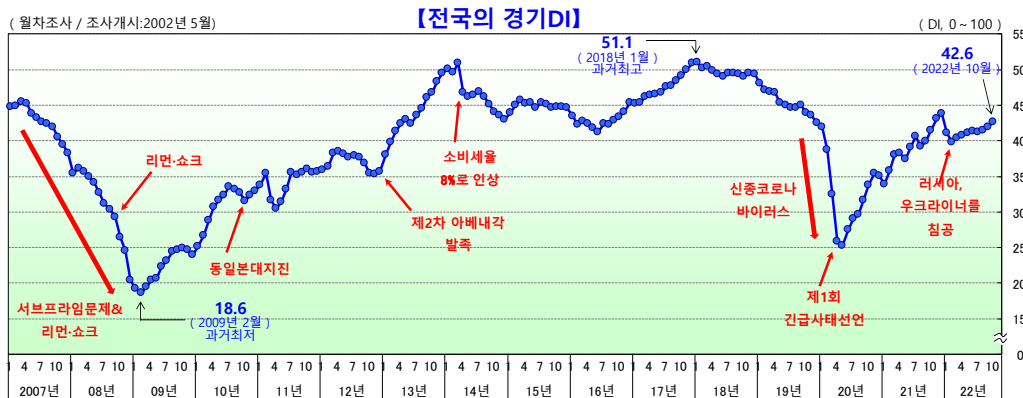
< 2022년 10월의 동향 : 개선 경향 >

2022년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42.6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전(2019년 12월 42.5)의 수준을 상회하였다.

10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의 신규 감염자수가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는 가운데 전국 여행 지원 실시 및 입국 시 검역 대책의 완화 등으로 인과가 증가하였다. 숙박업 및 여행업 등의 관광 관련 업종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등 IT 투자수요도 견조하였다. 또한 외환 환율이 1달러 = 150엔대로 32년 만에 엔저(円低)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재료 및 전력 가격 상승, 인력 부족감 고조, 생활필수품의 잇따른 가격 인상 등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용 서비스가 상향하면서, 3개월 연속 개선경향으로 추이하였다.

< 향후 전망 : 완만한 개선 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 경기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현황에 따른 사회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한단계 나아가, 사회 전체가 평상시로 돌아가려는 힘이 경기를 지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여행 지원이 서비스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 외에 엔저(円低) 등으로 인바운드 수요도 재확대하였다. 반도체 공급 회복, DX 수요 확대, 각종 경제대책 등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한편 인력 부족감이 기업의 절반 이상까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수입물가 급등 등 경기를 끌어내리는 국내외 요인도 많다.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과 실질임금 저하는 개인소비에 우려요소가 된다. 향후는 서비스 소비 및 DX 수요 확대 등이 기대되어 완만한 개선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